전북, 민간 주도 기술창업의 메카로 우뚝

2022년 2개 → 2025년 28개 팁스(TIPS) 선정 14배 급증… 선제적 투자로 눈부신 성과 거둬

2026년 '양적 팽창 넘어 질적 도약' …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계 기획형 창업 등 집중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민간 중심의 기술창업 육성 정책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꽃'이라 불리는 팁스(TIPS) 선정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팁스 선정 기업이 2022년 2개에서 2025년 28개로 14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며 민간 투자사(운영사)를 도내에 유치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해온 결과이다.

특히 2025년에는 도 지원을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한 6개의 팁스 운영사가 64개 기업을 발굴하고, 이 중 16개사에 38억원을 직접 투자하며 팁스 선정을 견인하였다.

2026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 운영 체계가 지역 기업에 유리하게 개편됨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창업 지원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반 및 스케일업 팁스 물량의 50% 이상이 비수도권 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지역 기업의 민간 투자 요건이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되어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또한 일반 팁스 정부 R&D 지원금이 기존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상향되며, 글로벌 팁스(최대 60억 원) 등 단계별 지원도 강화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맞춰 올해 사업비를 12억 원으로 편성하고, 민간 운영사의 책임성을 강화해 기술창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운영사 당 투자 의무는 기존 1개사에서 2개사 이상으로 확대되고, 투자 규모도 지원금 대비 2배수로 상향된다.

또한 도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한 '기획형 창업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해 기술 기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에너지 모빌리티, K-푸드테크, 첨단제조(피지컬 AI) 등 지역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60개 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정부의 팁스 개편은 지역 기술창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미 구축된 민간 투자 기반과 1조 원 규모의 전북 벤처펀드를 연계해 도내 유망 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통합방위훈련 참가한 육군 35사단 장병들 육군 35사단 충무여단 장병들이 22일 전주시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혹한기 전술훈련의 일환으로 열린 민·관·군·경·소방 등 통합방위훈련에 참석해 사주경계를 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한자리에… 전북건설단체연합회 신년인사회

전북도-건설업계 소통 강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력 강조… 공공건설 · SOC 확대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다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건설업계 간 소통 강화를 위해 '2026 전북건설단체연합회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건설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소재철 전북건설단체연합회장을 비롯한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협회, 건설기계협회, 엔지니어링협회, 소방시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건축사협회, 주택협회 등 10개 건설 관련 단체 대표 32명이 참석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건설업계와 전북도가 함께 지역 건설산업의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행사는 참석자 소개와 인사말씀, 기념촬영, 만찬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건설산업의 현안과 과제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도는 이 자리에서 2026년도 건설분야 도정 추진 방향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공공건설 조기 발주 확대, 지역업체 참여 강화,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통해 도내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주택사업에서도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업계의 경쟁력과 시공 기회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 건설산업을 이끄는 핵심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였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지역경제의 기반을 다져온 건설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SOC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공공건설 조기 발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해 건설산업과 건설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소재철 전북건설단체연합회장은 "지역 건설산업의 현실과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전북도와 건설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이끌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소비자 권익보호 앞장

2026년 소비자 피해구제 권익보호사업 운영기관 모집

소비자 피해 예방 · 분쟁 해결 등… 5개 분야 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 사업'을 추진할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사업은 △소비자 가치 주도 역량 강화 △소비자 정책 협력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 △소비자 피해구제 자율 공모 등 5개 분야,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7억2,000만원의 도비가 투입된다.

최근 온라인·비대면 거래 확산과 신유형 상품 증가로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상품 정보 부족과 복잡한 거래 구조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 행정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014년부터 '소비자 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해 매년 20~30명의 소비자 전문가를 양성해 왔으며, 이들이 고령자·어린이·다문화 이주여성 등 소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비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관과 전통시장, 지역 축제장 등을 찾아가는 '소비자 이동상담실'을 운영해 소비자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신속한 분쟁 조정과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방문판매·전화권유·통신판매업 등 특수거래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감시단을 운영해 매년 약 2만 개 업소를 대상으로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불공정 거래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시제 점검과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실태조사, 이동전화 판매점 허위·과장광고 조사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안 사업도 자율 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편 이번 공모는 전북자치도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3월 중 최종 운영기관이 선정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한파 대비 시 · 군 상하수도 관리 점검 강화

시 · 군 상하수도 관리체계 점검으로 계량기 동파 대응

전북특별자치도는 한파에 따른 계량기 동파와 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도내 시·군 상하수도 부서를 대상으로 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한 관리·대응 체계 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 상하수도 점검반이 시·군 상하수도 부서를 방문해 동파 예방 대책의 수립·이행 여부와 비상대응체계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시군별 자체 동파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보온덮개·보온재 등 사전 보호조치 이행 여부 △동파 예방 홍보 활동 추진 여부 등을 주요 점검 사항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동파에 취약한 복도식 아파트 등 일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도 병행했다. 점검반은 시·군과 협조해 △계량기 보온재 설치 상태 △주민 홍보문 게시 여부 등을 살펴보고, 관리사무소와 읍·면·동에 한파 시 보온 관리와 안내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한파 기간 동안 상수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동파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복구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순택 환경산림국장은 "계량기함 내부에 헌옷이나 수건을 채워 보온하고, 장기간 외출 시에는 수돗물을 약하게 틀어두는 등 기본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청, 겨울철 안전사고 제로화에 총력

새만금 사업지역 내 주요 기반시설 점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한파와 대설로 인한 겨울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22일 새만금 사업지역 내 주요 기반시설을 점검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 피해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새만금 사업지역 내 배수시설, 도로, 위험사면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제설장비 점검상태, 위험 시설물의 안전조치 여부 등 혹한기 대비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결빙 취약 구간과 상시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현장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한파·폭설 등 기상악화 예보 시 현장 작업 중지 및 실내작업 실시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김민수 사업총괄과장은 "겨울철 한파와 대설 등으로 인한 재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새만금 지역에서 혹한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폐회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22일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3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이어진 제276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22일에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남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남원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손중열 의원, 이미선 의원, 소태수 의원, 이숙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김영태 의장은 "민생안정지원금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촉진하지만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지역경제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으며, 시 의회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2026년 1학기 | 성인(리더자)의 필수! | 모 집

스피치 ◦ 긴장해소 ◦ 시낭송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 면접, 자신감, 리더십, 시낭송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 김양옥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수 역임
- 전북대학교 표준과 면접(교직이론) 담당교수 역임
-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회장, 전주대입문사 부사장
- 전북만민교육원 원 기획, 기업체 특강 만기 강사
- KBC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외 강의
- 스피치 컨설턴트
- 평생교육사
- 사회복지사
- 심리상담사
- 스피치 시낭송지도사
- 저서 "365 스피치유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노하우", "행복한 스피치" 등

< 전북도내 평생교육원 각 지역별 모집 >

학교별	주요과정(매주 1회수업)	지역별(자유선택)
전주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십 (금, 야간)	전주, 완주, 김제 부안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 스피치&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십, 스피치지도사 스피치&웃음코칭(야간)	전주, 완주, 진안 무주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기법과리더십(야간), 시낭송(야간)	익산 김제 논산 강경 무주
군산대학교(군산)	스피치기법과리더십(야간), 시낭송(야간)오이순지도	군산 서천 부안 김제
전북대학교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야간) (시낭송(야간)오이순지도	정읍 고창 순창
남원스피치 평생교육원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	남원 장수 순창 곡성 구례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3월에 학교별로 개강.